

살아 있는 신앙



김 차 봉
서울 서 선교부장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느냐 혹은 죽어 있느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신앙인이요,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육적인 인간입니다. 살아 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나 성신을 동반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신앙을 말한 것입니다. 침례와 성신을 받기 위한 안수례를 바쳤다고 해서 성신이 모든 사람의 동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의식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합당한 사람에게만 성신이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명에 순종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순수해야만 늘 성신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성신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고 늘 동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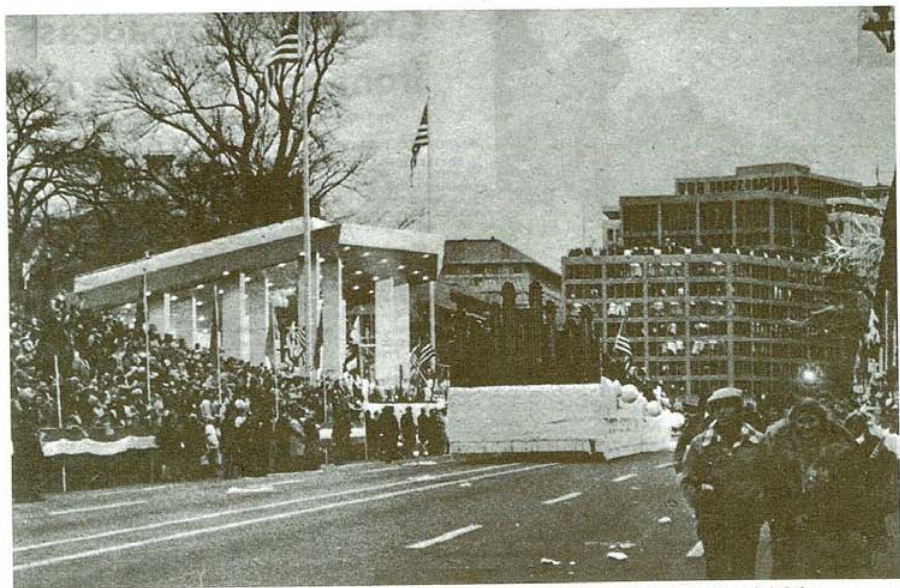
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9절에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보면 과거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저는 모든 죄의 목록을 만들 고 하나 하나 해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필요한 보상을 해야 하며 멀리 있는 분에게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면 용서를 바라고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민감하고 철저한 방법으로 죄를 고백하고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만 합니다. 자기의 죄를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도 간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

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즉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백의 기쁨이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난 후의 맑은 햇빛과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들과 접전하는 동안 그들은 성신을 동반하지 못하면 구도자를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성신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권 지도자의 접전이 필요할 때는 서슴치 말고 이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고 우리의 걱정 즉 분노와 증오와 질투 그리고 부도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히라맨서 4장 24절에 주의 영은 성스럽지 아니한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여워하고 나쁜 말을 입 밖에 낼 때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며, 성신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으며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조금 남보다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못 먹고 못 입을지라도 우리는 정당치 못한 일에 개입되어 성신을 떠나게 해서는 안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우리들을 함께 묶어 주는 평화”를(에베소서 4:3)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헌신과 회생으로 성신을 우리의 동반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했

으며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헌신과 회생 없이는 성신의 계속적인 동반을 가져 올 수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수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암흑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자격있는 훌륭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많은 구도자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잘 준비된 성도들이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신을 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먼저 회원된 입장에서 큰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가치있는 일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고 충명하게 되어 성신이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착한 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착한 종은 사랑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성신은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성신을 늘 동반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늘 하나님의 가호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

*

취임식장을 감동시킨 합창



태버내를 오르간과 같은 모양으로 만든 웅대한 꽃차가 대통령의 사열대 앞에 서 있고 합창단이 "공화국의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워싱턴 디 시

태버내를 합창단은 전국민이 즐겨 부르는 "공화국 찬송가"를 불러 100 개의 사회 단체가 준비한 1월 20일의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식 축하 행렬의 휘나레를 장식했다.

펜실베이니아가의 24킬로미터에 이르는 가도에 마련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사열대 앞에서 5분 반동안 멈춰 선 300여명의 합창단원은 미국의 새 영부인이 된 낸시 레이건 여사의 요청으로 찬송가를 불렀다.

시비에스 텔레비전 방송국의 해설자는 "집을 야외 행렬로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물론 태버내를 합창단이 바로 그렇게 해냈다."고 말했다.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에 레이건 대통령은 눈물을 감추려 눈을 깜박였으며, 노래

가 끝나자 눈을 닦았다. 식당 안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에이 비 시 텔레비전 해설자인 바바라 윌터스는 대통령의 딸 딸 모린양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그날의 극적인 행사를 몇 가지 들게 했다. 그녀는 먼저 부친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선서하는 것을 목격한 것을 들었다. 그다음으로 그녀는 "축하 행렬에서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은 것을 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물론 태버내를 합창단의 합창이 특히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시에 농림 장관으로 일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교회 대표로 취임식 축하연에 참석했다. 칠십인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틴 장로도 취임식에 참석했다.

취임식에는 많은 교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눈에 띄었다. 그 중에는 문교 장관으로 임명된 티 에이치 벨 박사, 공화당 전국 위원회 위원장인 리처드 리차즈, 유타주 상원 의원인 오린 햇치와 제이크 건형제 등을 들 수 있다.

말일성도 연예인인 도니와 마리 오스몬드 형제와 자매는 1월 19일 월요일 밤에 가진 취임식 축하연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과 함께 음악과 춤과 담소로 일관된 축하연을 빛내어 주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큰 대리석상과 열지어 늘어선 기둥들이 배경을 이루는 기념관 계단에 선 합창단은 군악대의 반주로 “아름다운 아메리카”, “공화국 전승가”, “미국 국가” 등을 불렀다.

그들이 국가를 부를 때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형형 색색의 폭죽들이 “불게 빛나는 로켓트”와 같이 터져 갔으며, 마치 대포가 터져 “천지를 진동시키는 것”과 같았다.

대통령 부처와 조지 부시 부통령은 영하의 찬 밤공기 속에서 바람이 불어 온도가 영하로 급강하했던 관계로 담요를 둘러 추위를 막아내야 했다.

대통령 부처는 음악을 듣고 크게 감동했다. 합창단은 세번째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했으나, 행렬에 참여한 것은 이번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행렬에' 참가한 합창단원들

이 첫번째였다. 합창단들이 길이가 33미터나 되는 꽃차를 타고 펜실베이니아가로 나아가자, 관중들은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 달라고 외쳤다.

합창단은 거리를 메운 15만 여명의 관중들에게 답례했으며, 수많은 인파가 여러 번씩 경찰 저지선을 넘어와 행렬의 맨 마지막에 입장한 합창단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신임 장관으로 발탁된 벨 형제와 자매는 솔트레이크 스테이크 회원인데, 대통령 부처와 함께 사열대에 앉아 합창단들이 그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

“합창단이 사열대에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춥고 어두웠읍니다.”라고 벨 자매가 말했다. 꽃차가 굉장히 컸을 뿐 아니라 음악이 너무나 훌륭했으므로, 모두 감격했읍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새 내각의 각료들과 함께 자리잡은 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합창단의 공연이 끝나자 장관들은 합창단이 이 훌륭한 날에 가장 어울리는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고 내게 말했읍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합창단의 노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논평했읍니다. 모두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벨 박사도 이렇게 말을 맺었다. “우리는 합창단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특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취임식을 위해 유한 날씨에도 용감히 나선 도니 오스몬드와 그의 아내 데비

장수 대잔치



지난 2월 6일 오후 동 스테이크 제1와드에서 50세 이상의 형제 자매님들을 모시고 “장수 대잔치”를 가졌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과 독신 성인들의 모임은 많지만 노인들을 위한 모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날 모임은 더욱 뜻깊은 모임이 되었다.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글을 써 붙이고 자녀를 보살피시느라 수고한 그들의 노고를 감사하고 장수를 기원하였다.

이날 모임을 위하여 국악인인 김 씨쪽 씨와 어린이 무용단이 열연을 하였으며, 참석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발표하여 더욱 모임을 흥겨우게 하여 주었다.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



서울 동 스테이크 합동 노년의 모임

지난 1월 18일 서울 동 스테이크 독신 성인 위원회에서는 24명의 지도자 부부를 모시고 “결혼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동 노년의 밤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신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특히 회원간의 결혼의 중요성과 신전 결혼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다. 또한 데이트, 구혼 그리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자유로이 토론하였다.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모임은 마지막까지 질문이 끊기지 않았으며 말일성도들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었다. *

천 낙숙 자매 “장한 어머니 상” 수상



지난 1981년 1월 17일 서울 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도봉 와드의 천 낙숙 자매는 도봉 구청에서 수여하는 “장한 어머니 상”을 받았다. 아들 4형제를 혼자서 교육시키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힘쓴 것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표창장을 받은 천 자매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더 큰 짐을 진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천 낙숙 자매 가족은 모두 활동적인 회원이며, 둘째 아들인 김 태석 형제는 부산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였고, 김 우석 형제는 선교사로 나갈 예정으로 있다. *

독신 성인 동계 지역 봉사

서울 동 스테이크 독신 성인 위원회에 서는 지난 1월 31일 성북구 노원교에 있는 맹인 대리원에서 지역 봉사 모임을 가졌다. 맹인들의 생활 주변을 정리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맹인들에게 삶의 기쁨을 심어 주었다. 이날 봉사 모임을 계기로 앞으로는 격월로 방문하여 맹인들의 환경을 정리해 주며,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

최 상흡 형제 선교사 기금 2,400불 기증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에 거주하는 최 상흡 형제는 한국의 초기 개종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초창기 교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형제이다.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고 유우머에 능한 그는 초창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크게 공헌했던 지도자이다. 한국에서 한때 공직에서 근무했던 그는 미국 유학을 하였으며 미국에 이주한 성도들 중에서도 크게 성공한 사업가이다. 그는 한국 성도를 위하여 선교사 기금을 보내면서 깊은 사랑을 함께 전했다. 그가 기증한 2,400불 중 1,200불은 서울 스테이크에서 그리고 나머지 1,200불은 서울 북 스테이크에서 받아들였다. 선교사 기금을 기탁받은 두 스테이크에서는 선교 사업을 원하는 두 명의 젊은이를 엄선하여 개인적으로 최 형제에게 연락할 방침이라고 한다. 성도의 벅사는 한국 성도를 대신하여 최 형제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울러 끝없는 발전과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

임 광량 형제 전국 관광 미예품 경진 대회 입상



지난 1980년 9월 26일 매년 개최되는 전국 관광 미예품 경진 대회에서 대구 지부의 임 광량 형제가 경제인 연합회 회장상을 받았다. 본 경진 대회는 한국 중소기업 진흥 공단이 주최하며 내무부 상공부 국제 관광 공사, 한국 무역 진흥 공사, 경제인 연합회 그리고 디자인 포장 센타 등의 후원을 받아 매년 한번씩 전국 시, 도에서 출판한 작품을 전시하고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임 형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광 미예품 제작에 힘써 왔으며, 이번에 입상한 작품은 등과 칠보를 재료로 하여 만든 반짓 고리와 보석함이다. 임 형제는 이번 입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미예품 판매 업체를 갖게 되었다.

*



신간 서적 안내

신약 성서 이야기

이 책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구약성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엮어져 있다. 내용을 잘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면 효과적이다. 이 책에 나오는 각 그림 아래에는 이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적혀 있다.

값 2,000원



상호부조회 교재 ('81년도)

본 교재는 모든 말일성도 자매를 위한 1981년도 상호부조회 교재이며, 이 교재에는 영적인 생활, 가사, 어머니 교육, 사회 관계 및 문화의 정수 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계 자매들의 필요성을 만족시켜 주기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교회 회복 150 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공과가 수록되었으며, 책 뒷 면에는 민속 음악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값 1,000원



구약전서 제1부

이 책은 1981년도 28반 및 18반 교사 보조 교재로 마련되었다. 즉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과 청년반 교사가 사용하는 책이다. 구약전서를 제 1부와 제 2부로 나누어서 금년에는 제 1부를 공부하게 된다.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와 시편이 포함되어 있다. 시편 전에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는 1982년도에 제 2부로 공부하게 된다.

값 1,000원

